

스위스 달크로즈인스티튜트(IJD)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국내 달크로즈 교육 발전방안 모색

유 승 지

I. 들어가는 글

1915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달크로즈인스티튜트(Institut Jaques-Dalcroze, 이하 IJD로 칭함)는 그야말로 달크로즈 교육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에게 직접 사사하고 디플로마 학위를 받은 이는 약 120명으로(Bachmann et al. 2010: 21), 이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달크로즈 교수법을 퍼뜨린 주역이다.

국내 달크로즈 교수법의 전파는 1999년 2인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¹⁾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위성학교를 통해 해외에서만 취득 가능하였던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부터는 IJD의 승인 하에 한세달크로즈센터가 위성학교가 아닌 독립된 주체로서 한국의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을 주

1)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은 디플로마, 라이선스, 서티피케이트로 구분된다. 디플로마 소지자에게는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는 달크로즈 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소지자에게는 어린이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Sakai 2012: 2).

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플로마 소지자만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규정에 묶여 일본인 디플로마 소지자인 사카이(Toru Sakai)가 프로그램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본의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인 디플로마 소지자가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우리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디플로마 소지자 없이 라이선스 소지자만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에 미비한 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겪다 보니 디플로마 소지자의 존재 유무가 프로그램 운영적인 면뿐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 내용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라이선스, 서티피카트 학위와는 달리 IJD에서만 수여하는 디플로마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IJD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전일제 학생으로 참여하거나, 3년에 걸쳐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Duret, Bianco, & Bachmann 2012: 5). 이는 디플로마 학위과정에서 학생들이 IJD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달크로즈 교수법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IJD의 교육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달크로즈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IJD에 유학하여 그 교육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오늘날 달크로즈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한국인 라이선스 교사는 총 7인인데, 이 가운데 1인은 국내 교육과정을 통해, 나머지 6인은 모두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그렇다 보니 달크로즈 교육의 본산인 IJD의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혜진이 2008년 발표한 학위논문 “국내·외 Dalcroze

Eurhythmics 교육현황 조사”에 IJD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지긴 했지만, 2008년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 스위스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IJD의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달크로즈 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달크로즈 전문가 및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달크로즈 교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JD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IJD 교육과정은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셋째, IJD 교육과정을 국내 달크로즈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상의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인스티튜트 방문과정’에 등록하여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직접 IJD를 탐방하였다. 그리고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을 참관하고, 달크로즈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에 학생으로 참여하여 그 교육의 실재를 경험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정보와 『2017-2018 HEM 학·석사과정 수강편람(HEM 2017-2018 Guide de L'Étudiant)』, 『2017-2018 IJD 교육과정 소개 책자(IJD Programme des Cours 2017-2018)』 분석을 통해 현재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크로즈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여하고 있는 한세달크로즈센터의 교육과정과 IJD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달크로즈 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II. IJD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1. 달크로즈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학위과정 운영

IJD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네바음악원(Conservatoire de Musique de Genève, 이하 CMG로 지칭)²⁾과 제휴하여 2006년 제네바국립고등음악원(Haute École de Musique de Genève, 이하 HEM으로 지칭)³⁾이라는 교육기관을 탄생시켰다. 1915년에 설립된 IJD라는 교육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달크로즈 전문가 양성을 위한 모든 교육이 IJD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달크로즈 관련 학·석사 학위는 HEM을 통해 배출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학위 수여 기관은 IJD와 HEM으로 구별되고 HEM은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IJD는 달크로즈 분야의 최고 학위인 디플로마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위 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Bachelor en Musique et Mouvement)

HEM의 ‘음악과 움직임과(Département de Musique et Mouvement)’에 속해 있는 학사과정을 마치면 ‘음악과 움직임 예술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3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당 20~25시간 전일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초등학교, 유아원, 유치원 등에서 리드미크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3년 재학 기간 동안 총 18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교과목 구

2) 제네바음악원(CMG)은 1835년에 설립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원이다. <http://www.cmg.ch/> (2018년 6월 접속).

3) 제네바국립고등음악원(HEM)은 6개의 과(건반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고음악, 음악과 움직임, 작곡 및 이론)로 구성되어 있다. <https://www.hesge.ch/hem/> (2018년 6월 접속).

4) 북미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드믹스(eurhythmic)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리드미크(rythmique)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드미크로 통일해서 사용하겠다.

성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2018 HEM ‘음악과 움직임과’ 학사과정 개설
교과목(HEM 2017: 53))

	학점	개설 교과목
전공 기초 교과목	68학점	피아노 실기, 기악 실기, 리드미크, 솔페즈, 기악 즉흥연주, 창의적 실험 워크숍
전공 심화 교과목	42학점	양상블 프로젝트, 그랜드 양상블, 발성, 기타 반주, 어린이 합창단 지도, 수업보조·실습·방법론, 교육학 및 방법론, 교수법, 교수 실습 워크숍, 창의적 바디 테크닉, 움직임 기술 및 조합, 코레오그래피-플라스틱아니메, 세션-프로젝트
일반 음악교육 교과목	44학점	음악사, 심리학, 화성학, 음악분석, 논문 작성법, 조명 및 제어, 전기-음향, 취업 워크숍
자유선택 교과목	8학점	HEM 혹은 다른 연계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자유선택 수강
학사 프로젝트	18학점	졸업 공연, 졸업 논문
총	180학점	

2) (Master en Pédagogie Musicale, Orientation Rythmique
Jaques-Dalcroze)

HEM의 ‘음악과 움직임과’에 속해 있는 석사과정을 마치면 ‘음악교육학 석사: 달크로즈 리드미크 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 2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당 20~25시간 전일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석사학위를 받게 되면 달크로즈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2년 재학 기간 동안 총 12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교과목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2017-2018 HEM ‘음악교육학: 달크로즈 리드미크 전공’ 석사과정
개설 교과목(HEM 2017: 53)

	학점	개설 교과목
전공 핵심 교과목	60학점	리드미크, 솔페즈, 즉흥연주, 움직임과 수업을 위한 즉흥연주, 석사 프로젝트(실험 워크숍: 교수법의 적용/ 실험 워크숍: 그룹 공연)
전공 심화 교과목	36학점	교육학, 달크로즈 이론, 실습 과정: 리드미크 솔페즈, 실습 과정: 기타 과정 실습, 석사 프로젝트(논문 작성)
일반 선택 및 보충 교과목	24학점	창의적 움직임과 기술, 재즈 즉흥연주, 전기 음향·기술 및 컴퓨터 음악, 화성학, 취업 워크숍, 연구 세미나, 석사 논문 지도, 특별 프로젝트(세션/ 국제학술대회 및 여름 워크숍/대체수업)
총	120학점	

3) (Diplôme Supérieur)

HEM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라이선스를 소지한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리드미크, 솔페즈, 피아노 즉흥연주, 피아노 연주 능력, 티칭 능력을 가늠하는 입학시험을 통과하여야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총 소요기간은 1년에서 3년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과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 시험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및 졸업 시험 항목(Duret, Bianco, & Bachmann 2012)

과목	이수시간
리드미크, 솔페즈, 움직임 즉흥연주 (석사 과정 수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업 이수)	각 32시간
피아노 즉흥연주, 달크로즈 페даго지(디플로마 과정을 위한 수업 이수)	각 32시간
논문 지도 (개인지도)	10시간
리드미크 교수 실습, 솔페즈 교수 실습, 즉흥연주 교수 실습	각 15시간
졸업 시험 항목	
1. 티칭 시험: 달크로즈 전문가 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5~60분 내외의 수업 실시 1) 2회의 리드미크 수업, 2) 2회의 솔페즈 수업, 3) 2회의 즉흥연주 수업 2. 2회의 플라스틱 애니메 공연: 공개적으로 공연을 실시하여야 하고 2회 공연 중 1회는 응시자가 공연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1) 솔로 혹은 듀엣, 2) 그룹 3. 피아노 즉흥연주: 개인 실기 시험 4. 논문 공개 발표: 작성한 논문을 심사위원과 대중 앞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달크로즈 전문가를 위한 재교육 및 교수법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JD는 달크로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외에, 졸업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인스티튜트 방문과정,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및 여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달크로즈 교사들의 재교육 및 교수법의 세계적 확산에 힘쓰고 있다.

1) (Certificat d'Études Dalcroziennes, 이하 CAS자격증으로 지칭) 과정

CAS자격증 과정은 HEM이 주관하고 IJD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달크로즈 교사 호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음악가, 음악교사, 무용가, 배우, 음악치료사 등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도 한다. 2년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9월부터 5월까지 매달 한 번씩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진다.

2) 교사를 위한 심화교육과정

IJD 주관으로 달크로즈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노인교육에 관심 있는 자를 위해 개설된 ‘노인을 위한 리듬 교육’,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적용 방법을 배우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통합적 적용’, 달크로즈 교사의 즉흥연주 능력 향상을 위해 개설된 ‘교수법과 즉흥 연습’ 수업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미 달크로즈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적용 방법을 알려 주고 그들의 활동 지경을 넓혀 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겠다.

3) 인스티튜트 방문과정

IJD 수업 현장 참관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개인 혹은 그룹이 방문을 신청하여 필요에 따라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그 외 1년에 2회씩 방문자들에게 IJD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수업을 소개하는 ‘방문자를 위한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10월과 2월에 각각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세미나는 IJD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부터 노인 대상의 수업과 HEM의 학·석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4>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구자가 참가한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아침 8시 45분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IJD의 하루가 명료하게 제시된다.

<표 4>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방문자를 위한

세미나 일정(IJD 2017b)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08:45-09:15	08:30-09:20	
오리엔테이션	IJD 달크로즈 수업 비디오 시청	
09:30-10:10	09:30-11:00	09:20-10:00
2-3세를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리드미크 (IJD)	즉흥연주 II (HEM 석사)	2-3세를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리드미크 (IJD)
10:15-11:30	11:15-12:45	10:00-10:50
리드미크 (HEM 학사)	달크로즈 교수법 소개	리드미크 솔페즈 입문 I (IJD)
13:00-14:00		10:50-11:50
노인 수업 비디오 시청		솔페즈 III (HEM 학사)
14:00-15:05	14:30-16:00	12:10-13:10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HEM 석사)	창의적인 움직임과 기술 익히기 (HEM 학사)	그룹 피아노 즉흥연주 (IJD)
15:30-16:00		15:00-16:00
도서관 탐방		어린이 합창 (IJD)
16:30-17:30	16:40-17:30	17:00-18:40
리드미크 솔페즈 III (IJD)	창의성 개발을 위한 워크숍 (IJD)	중급 리드미크 솔페즈 1 (IJD)
17:30-18:20	18:30-19:20	
리드미크 솔페즈 IV (IJD)	성인을 위한 리드미크 (IJD)	

4) 및 여름 워크숍

매 4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2015년의 경우 달크로즈 탄생 150주년, IJD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7월 20일부터 24일까

지 5일에 걸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음 학술대회는 2019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여름 워크숍이 개최되고, 매년 7월 1주간 진행된다.

3.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1)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을 위한 과정, 2) 성인을 위한 과정, 3) 학부모와 함께 하는 워크숍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IJD가 본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네바 13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육센터에서 3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⁵⁾ 지역에 따라 개설 교과목은 다르나 과목마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제네바에 있는 CMG, 그리고 대중음악·무용·연극 콘서바토리(Conservatoire Populaire de Musique, Danse, Théâtre, 이하 CPMDT로 지칭)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레벨이 되면 세 학교가 공통된 시험을 시행하여 수료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⁶⁾. 이러한 제도 시행의 목적은 학생들이 악기 연주 과정과 보충과정을 균형 있게 수강함으로써 다양한 예술 경험을 쌓아 악기 연주 능력 뿐 아니라 상상력, 사회성, 감수성, 자율성, 예술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FEGM 2010: 2).

1)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12개월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을 위한 과정은 크게 ‘리드미크 솔페즈(rythmique-solfège, 이하 RS로 지칭)’, ‘피아노’, 그리고 ‘보충과정’으

5) <https://www.dalcroze.ch/informations-pratiques/lieux-cours-dalcroze/> (2018년 7월 접속)

6) 세 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는 음악 교육 플랜은 1995년 제네바 음악학교 연맹(Fédération des Écoles Genevoises de Musique, 이하 FEGM)을 통해 이루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FEGM 2010).

로 구분된다. 'RS' 과정은 IJD의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12개월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진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기본적 음악이론을 습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IJD, CMG, CPMDT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RS 5' 과정을 마치면 CFM(Certificat de Formation Musicale) 수료증을 받게 된다.

'피아노 개인 실기' 수업의 경우 7세 이상이 수강할 수 있고 'RS'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연주 시험이 있다(<표 5>에서 *로 제시됨). 또한 1단계 마지막 연주 시험을 통과하고 'RS 5'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AFA(Attestation de Formation Artistique) 수료증을 받고, 2단계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LM 1(Langage Musicale 1)을 포함한 4가지 보충과정(Cours Complémentaires)을 이수하면 CEM(Certificat d'Études Musicales) 수료증을 받게 된다. '그룹 피아노 즉흥연주' 수업의 경우 6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보통 2년 단위(6세~8세/ 7세~9세/ 8세-10세)로 그룹이 구성된다. '피아노 개인 실기'와는 달리 HEM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 참여로 시험을 대신한다(<표 5>에서 *로 제시됨). 하지만 1단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피아노 개인 실기' 수강자와 마찬가지로 AFA수료증을 받게 된다.

'보충과정'은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음악성을 향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인데, IJD, CMG, CPMDT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차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고급 RS 2' 혹은 '고급 RS집중과정 1'을 마치면 ALM(Attestation de Langage Musical) 수료증, '고급 RS 4' 혹은 '고급 RS집중과정 2'를 마치면 CLM(Certificat de Langage Musical)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표 5> 2017-2018 IJD 유아,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정(IJD 2017a)

개설 교과목					
리드미크 솔페즈 (RS) 과정	부모와 함께 하는 RS (12-18개월/ 18-24개월/ 2-3세/ 3-4세)				
	RS 입문1 (4-5세) / RS 입문2 (5-6세)				
	RS 1 (6-7세)/ RS 2 (7-8세)/ RS 3 (8-9세)/ RS 4 (9-10세)/ RS 5 (10-11세)				
	어린이를 위한 RS (8세 이상)				
	RS 1 및 피아노 (8세 이상)				
	기악 RS 4/ 기악 RS 5 (8세 이상)				
피아노 과정	<table border="1"> <tr> <td rowspan="3">피아노 개인실기 (7세 이상)</td> <td>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td> </tr> <tr> <td>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td> </tr> <tr> <td>2단계 (palier IV-1/ IV-2*/palier V-1/ V-2*/ palier VI-1/ VI-2*)</td> </tr> </table>	피아노 개인실기 (7세 이상)	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	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	2단계 (palier IV-1/ IV-2*/palier V-1/ V-2*/ palier VI-1/ VI-2*)
	피아노 개인실기 (7세 이상)		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		
			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		
		2단계 (palier IV-1/ IV-2*/palier V-1/ V-2*/ palier VI-1/ VI-2*)			
	피아노 집중 과정(7세 이상)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그룹 피아노 즉흥연주 (6세 이상)</td> <td>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td> </tr> <tr> <td>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td> </tr> </table>	그룹 피아노 즉흥연주 (6세 이상)	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	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		
그룹 피아노 즉흥연주 (6세 이상)		도입과정 (initiation I/ initiation II *)			
	1단계 (palier I-1/ I-2*/ palier II-1/ II-2*/ palier III-1/ III-2*)				
보충과정	고급 RS 1-4 (11세 이상), 고급 RS집중과정 1-2 (11세 이상), 창의적 워크숍 (6-17세), 춤의 표현 (5-11세), 댄스 코미디 (11-15세), 어린이 합창 (7-11세), 청소년 합창 (12-16세), 타악기 (7세 이상), 전자 음악 (12-17세), 기악즉흥연주 (9세 이상), 실용화성학 (12세 이상), 기악양상불 즉흥연주 (12세 이상),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기 (12세 이상), 초견 (10세 이상)				

2) 위한 교육과정

전혀 음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수업

도 개설되어 있는데, ‘성인을 위한 리드미크(18-65세)’, ‘성인을 위한 솔페즈(18세 이상)’, ‘노인을 위한 리드미크(60세 이상)’, ‘파킨슨 환자를 위한 리드미크’ 등의 교육과정이 있다. 특히 각 과정이 연간 40회, 최소 인원 9명 이상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노인을 위한 리드미크’ 과정은 2017년 가을학기의 경우 총 18개의 수업이 진행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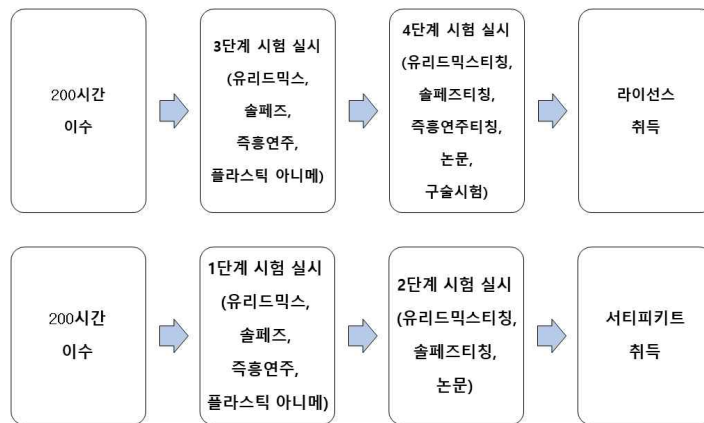
3)

학부모와 함께 달크로즈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들로 ‘가족이 함께하는 리드미크(5-10세 어린이와 부모)’, ‘오! 배우기 쉽지 않아요(8세 이상의 어린이와 학부모)’, ‘피아노 즉흥연주(8세 이상의 어린이와 학부모)’,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배우는 대나무 피리(6세 이상)’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 중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개설된 ‘오! 배우기 쉽지 않아요.’ 수업은 달크로즈 교수법이 음악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업이다.

Ⅲ. IJD 교육과정과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 비교

IJD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디플로마를 소지한 여러 교수진들의 지도하에 학·석사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플로마 과정을 거치면서 달크로즈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었다. 이에 비해 평생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학·석사 학위가 아닌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서티피케이트/ 라이선스)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관계로 교과목 개설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200시간 안에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인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학기 중 정규 교육과정과 여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국제워크숍으로 구분된다. 학기 중 정규 교육과정은 ‘달크로즈 기초과정’, ‘달크로즈 심화과정’, 그리고 ‘달크로즈 실기과정’으로 나누어지고 그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한세달크로즈센터 학기 중 정규 교육과정 운영 현황⁷⁾

	교과목 명
달크로즈 기초과정	초급 (14주 35시간), 중급 (14주 35시간), 유·초등 (14주 42시간)
달크로즈 심화과정	심화 I (14주 42시간), 심화 2 (9주 45시간), 심화 3 (5주 10시간)
달크로즈 실기과정	성악 발성, 피아노 즉흥연주, 피아노 실기, 무브먼트 기초, 무브먼트 심화

7) <http://www.hanseidalcroze.com/education1.html> (2018년 6월 접속)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국제워크숍은 여름(19시간)과 겨울(35시간)에 진행되는데, 라이선스를 소지한 한국인 교수진으로 구성된 정규 교육 과정과는 달리 디플로마 학위를 소지한 외국의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오고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플라스틱 애니메, 페다고지 수업과 특강이 수준별로 이루어진다.

교사 양성과정 외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2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달크로즈 과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페라 과정’, 그리고 달크로즈 교수법과 악기교육을 접목한 ‘피아노’, ‘하프’, 그리고 ‘오카리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모든 수업이 서티피카트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실기 과정을 제외한 그룹 수업은 학기별로 14주씩 토요일에 진행된다. 6세 이상의 수강자들은 한세달크로즈센터에서 개최하는 음악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며 모든 수업이 학생들의 음악성 및 실기능력 향상뿐 아니라 신체 지각 능력, 창의성, 상상력, 사회성, 그리고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진다.

제네바달크로즈이사회는 2009년 출판된 *The Dalcroze Identity*에서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의 달크로즈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에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 영역: 리드미크, 솔페즈, 즉흥연주’, ‘플라스틱 애니메’, ‘이론과 원리(역사 국면 및 현대적 이슈 포함)’, ‘페다고지’, ‘현장 실습’, ‘글쓰기’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Le Collège 2009: 4)고 명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네바달크로즈이사회가 제시한 요목들이 IJD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미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타진해 보고자 한다.

1.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 영역: 리드미크, 솔페즈, 즉흥연주 교

육과정 비교

1)

IJD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움직임과 즉흥연주를 결합한 달크로즈 교수법은 신체(living body)를 훈련해야 할 첫 번째 악기로 여기는 음악교육방법이다”⁸⁾ 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음악으로 나가는 통로라 여기고(Black & Moore 2008: xi), 음악교육과정에서 ‘움직임 훈련’을 중시한 달크로즈의 교육철학은 IJD의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학사과정의 경우 다양한 음악 개념을 움직임으로 익히는 ‘리드미크’ 수업이 6학기 내내 주 2회 90분씩 이루어지고, 석사과정은 주 1회 75분 수업이 총 4학기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의 경우 학사과정에 비해 ‘리드미크’ 수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학사과정의 수업을 청강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음악적인 악기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급’ 및 ‘심화 1’ 과정 수업에서 ‘리드미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150분~180분 수업에서 리드미크, 솔페즈, 즉흥연주를 다 가르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3대 영역 중 한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3대 영역을 균형 잡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솔페즈

달크로즈 솔페즈 교수법은 움직임과 즉흥연주를 사용하는 것에서 전통적인 솔페즈 수업과 차별된다(Le Collège 2009: 14). 학사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솔페즈 수업을 주 1회 120분씩 수강하고, 1·2학년들의

8) <http://www.dalcroze.ch> (2018년 7월 접속).

경우 가창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솔페즈 수업 외에 ‘합창’, ‘발성’ 수업을 추가로 이수한다. 이에 반해 석사과정 학생들은 1학년 때만 솔페즈 수업을 주 2회(60분/ 75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초급’ 과정부터 ‘심화 1’ 과정에서 달크로즈 솔페즈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올바른 발성법을 익혀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은 달크로즈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솔페즈 개념들을 다루기에도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발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격증 시험과정에서 올바르게 못한 발성 습관에 대한 지적을 받는 학생들도 간혹 발생한다. 따라서 잘못된 발성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솔페즈 수업과는 별도로 발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달크로즈 교사에게 있어 학생들의 음악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즉흥연주 능력, 특히 피아노 즉흥연주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연주 수업은 즉흥연주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즉흥연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Sourisse 2017: 177). 따라서 즉흥연주 관련 교과목은 리드미크, 혹은 솔페즈 수업의 주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음악개념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항목들로 내용이 채워진다.

2017년 가을학기에 개설된 즉흥연주 관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학사과정 학생들은 ‘기악 즉흥연주’, ‘화성학’, ‘피아노 개인 실기’ 수업을 주 4시간씩 수강하고, 3학년 학생들은 음악분석 수업도 추가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악 즉흥연주’와 ‘화성학’ 수업 모두 5명 이하를 정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별 자질 함양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악 즉흥연주’ 수업에서는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를 이용한 즉흥연주도 다루어지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피아노 즉흥연주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수업이 이루어진다. 화성학 수업의 경우에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 화성학 이론을 학습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석사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들 외에 ‘움직임과 수업을 위한 즉흥연주’, ‘재즈 즉흥연주’ 수업이 추가되어, 즉흥연주를 위한 어휘를 늘리고, 수업에서 즉흥연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전문적으로 익힌다.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초급’ 과정부터 ‘심화 1’ 과정까지 즉흥연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단계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즉흥연주의 기초를 다지고, 피아노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자질도 함양하게 된다. 그리고 ‘심화 2’ 과정부터는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즉흥연주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움직임과 수업을 위한 즉흥연주’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페다고지 수업시간에 수업 진행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즉흥연주방법을 익히는 것에 그치고 있어, 꼭 필요한 즉흥연주 요목이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소규모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HEM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들의 즉흥연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재즈 즉흥연주’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국내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다.

2. 플라스틱 애니메이션 교육과정 비교

“보이는 음악으로 만들기(making music visible)”(Le Collège 2009: 19) 작업인 플라스틱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음악을 분석해서 안무 작업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교사뿐 아니라 공연자 혹은 공연제작자로서의 역량도 쌓게 되는 것이다. 디플로마 학위 취득

을 위해서는 2회의 플라스틱 애니메 공연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그 중 한 작품에는 응시자가 직접 공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 항목은 달크로즈 교사가 움직임 역량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요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달크로즈는 헬레라우 학교에 극장을 만들 때 *Living Theatre*의 저자 아피아(Adolphe Appia, 1862-1928)⁹⁾와 공동 작업을 하였고(Wax 1973: 3), 소렐(Walter Sorell, 1905-1997)은 “달크로즈의 가장 큰 업적은 연극 춤과 20세기 안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Spector 1990: 207)이라고 하였다. 달크로즈는 음악 교육가였지만 종합예술가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다. IJD의 금요일은 달크로즈의 후예들이 그의 뒤를 쫓아 종합예술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고학년이 리더가 되어 저학년 학생들과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작업에는 움직임과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뿐 아니라 조명, 전기, 음향 등 테크놀로지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도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창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디플로마 교사들이 지도하는 ‘리드미크’ 수업 외에, 무용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창의적 바디 테크닉’, ‘움직임 기술 및 조합’, ‘코레오그래피-플라스틱 애니메’, ‘창의적 움직임과 기술’ 등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플라스틱 애니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창의적 실험 워크숍’ 수업을 통해 움직임과 음악이 결합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학사과정의 경우 총 5과목(1·2학년: 9.5시간, 3학년: 6.5시간), 석사과정의 경우 2과목(매주 2.75시간)이 개설되어 있다. 3학년과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1·2학년에 비해 관련 수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진행하고 있거나

9) 아피아는 스위스의 무대 장치가로 조명의 창조적 사용에 관한 이론으로 20세기 연극 연출에 새로운 사실주의와 창조성을 낳는데 이바지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4a2777a> (2018년 6월 접속).

저학년들을 위해 개설된 수업을 칭찬하면서 프로젝트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학부과정에서는 ‘조명 및 제어’, ‘전기-음향’ 등의 교과목이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석사과정에서는 ‘전기 음향, 기술 및 컴퓨터 음악’이 주 1회 60분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공연 연출자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달크로즈 기초과정 수업에서 무용 전문가의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움직임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브먼트 기초’, ‘무브먼트 심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 아니다 보니 달크로즈 입문 시기부터 이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플라스틱 애니메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에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움직임의 어휘가 부족하고, 음악을 분석해서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움직임 역량을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페다고지,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과정 비교

HEM 학위과정에서는 학생들을 현장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실습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 과정은 1) 수업 참관, 2) 수업 지도교사와의 수업 내용 토의, 3) 수업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기, 4) 실제로 수업 진행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수업 참관 후 수업 지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수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1학년부터 참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가르쳐 보는 경험을 가지면서 현장에 적응하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학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시험을 보

게 되는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년에 따라 참관할 수 있는 수업도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7년에 개설된 참관 및 실습수업의 경우 1학년은 'RS 1', 2학년은 공립학교, 3학년은 'RS 2' 수업을 참관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참관과 실습기회를 부여하여 노인에서부터 청소년 수업에 이르기까지 IJD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을 목격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고 선택적으로 페다고지 관련 교과목의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석사 과정에 패스/논 패스 과목으로 개설된 '대체 수업'은 IJD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담당교사가 부재 시 석사 과정 학생이 수업을 대신하는 활동을 통해 과정을 이수하는 교과목인데, 학생들에게는 현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IJD 교사들에게는 유연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2017년 가을학기 학·석사 과정에 개설된 페다고지 및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수업 보조, 실습, 그리고, 방법론', '교육학 및 방법론', '교수 실습 워크숍', '실험 워크숍: 교수법의 적용', '참관 및 실습', '교육학 및 방법론', '심리학' 등이다. 이러한 과목들 중에서 학사 과정 3학년과 석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교수 실습 워크숍'과 '실험 워크숍: 교수법의 적용'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시행해 보고 교사와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수업인데, 학생들은 자신이 구상한 수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현장수업 참관 및 실습 과정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화 2' 수업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시행해 보거나, 자신의 수업 장면을 촬영해 온 동영상상을 보면서 교사와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페다고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장실습 과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 교육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교수법

의 원리를 본인의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현장 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페даго지 수업의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이론 및 원리, 그리고 글쓰기 교육과정 비교

학사과정에서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법’ 수업이 주 1회 90분씩 이루어진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오면 달크로즈 교수법의 역사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달크로즈 이론’ 수업이 주 1회 120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는 수업도 개설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 달크로즈 수업 경험에 대한 개인적 성찰,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교수법의 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에세이 작성, 2) 음악 게임,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담은 포트폴리오 제작, 3) 레슨 플랜 작성, 4) 달크로즈 수업 주제에 대한 연구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e Collège 2009: 22).

국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도 위에서 제시된 4가지 항목: 1) 에세이 작성, 2) 포트폴리오 작성, 3) 레슨 플랜 작성, 4) 달크로즈 수업 주제 연구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심화 2’ 수업시간에 2), 3), 4) 번 항목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에세이 작성에 관련된 지도는 ‘심화 3’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의 수가 제한적이고, ‘심화 3’ 수업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글쓰기 훈련이 이루어지고, 달크로즈 관련 서적들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토의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IV. 국내 달크로즈 교육 발전방안 개발

IJD 현장 체험을 통해 발견한 달크로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IJD 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제한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은 매우 다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달크로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목표는 동일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우리가 처한 교육여건 속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나누고자 한다.

1. 달크로즈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탐색한다.

교육과정 분석과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HEM의 학·석사 과정 학생들은 주당 20시간이 넘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리드미크, 솔페즈, 즉흥연주, 플라스틱 애니메 각 영역별로 매우 심도 깊은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학위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내 교육여건을 살펴볼 때 주당 평균 20시간에서 25시간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에 학위 과정이 생기더라도 학부과정에 달크로즈 학위 과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석사과정 개설로는 이러한 시수를 맞춰 교육과정이 진행되기도 어렵다. 또한 디플로마 교사가 없는 국내의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서 달크로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의 구분 없이 150분~180분 수업이 진행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각 영역별로 시간을 분배해서 1교시 리드미크(60분), 2교시 솔페즈(50분), 3교시 즉흥연주(60분) 이런 식으로 구분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면 작은 변화지만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균형 잡힌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애니메 수업을 1시간 추가해서 240분 수업으로 확대하

면 더욱 내실 있는 수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준 별로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고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클래스 개설도 필요하다. 지난 15년 동안 국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인 15명, 대만인 1명이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서티피케이트 15명/ 라이선스 1명)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라이선스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데, 앞으로 더욱 많은 라이선스 교사가 배출될 것이므로 라이선스 후(post-license) 과정 개설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단계별로 갖춰야 하는 자질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국내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달크로즈패스पोर्ट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에는 각 과목별로 시험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항목에서 어떤 자질을 갖추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 록키달크로즈스쿨(Dalcroze School of the Rockies)에서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디투스(Jeremy Dittus)는 영역별 학습 포인트와 자가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교재, *Professional Studies Program and The Dalcroze Academy Student Handbook*(2018)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에게 학습하여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해서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국내 교육과정에는 움직임, 즉흥연주, 발성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보충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나, 수업 수강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그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별로 기본 자질이 달라 정규 교육과정 수강만으로는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각 개인별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개별 면담을 통해 부족

한 자질을 효과적으로 채워 나가도록 안내하는 개별진단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 내내 수업이 이루어지는 IJD와는 달리 주말에 거의 모든 수업이 이루어는 국내 교육과정의 경우 시간 및 공간적 제약 때문에 개설 가능한 과목의 수가 한정되고, 장거리 통학 자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수업 수강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다. 또한, 국내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수강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학생들의 점진적 실력 향상을 유도하는 시험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일제 학생으로 주 20시간 이상 달크로즈 공부에만 매진하는 HEM의 학위과정 학생들과는 달리, 국내 달크로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달크로즈 공부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평생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운영되다 보니 과제 수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수업 시간에 시험의 형식을 빌려 테스트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시험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서티피카트 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요건인 200시간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서티피카트 자격증을 소지한 15명의 자격증 취득에 걸린 소요시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3년에서 최장 17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8.6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강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이 알차게 운영되면서도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금보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이 평생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시험 운영 방식은 국내 시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경우 기초 레벨(foundation level), 중급 레벨(intermediate level),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레벨(certificate level)로 시험의 단계를 구별한다. 단계별로 75시간을 이수하면 레벨 테스트에 응시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여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¹⁰⁾ 이러한 제도 운영에 의해 학생들은 단계 별 시험을 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소그룹 활동을 통한 창의적 프로젝트 수행을 활성화시킨다.

2018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미술·역사박물관(Musées d'Art et d'Histoire de Genève)에서는 'Le MAH invite l'IJD'라는 공연이 펼쳐졌다.¹¹⁾ 이 공연은 스위스의 화가 호들러(Ferdinand Hodler, 1853-1918)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린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사, 석사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박물관에서 그림, 음악, 움직임이 연계된 공연을 한 것인데 공연의 장소가 박물관인 것이 매우 특별하다. 이렇게 IJD 학생들의 창의적 실험은 학교 내에 있는 공연장으로 제한되지 않고 박물관, 수영장, 차고, 카페 등 장소를 가리

10) <https://www.dalcroze-canada.com/index.php/en/training/get-started>
(2018년 7월 접속).

11) https://www.dalcroze.ch/wp-content/uploads/2018/02/A6_MAH-1.pdf
(2018년 7월 접속).

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연의 소재와 발상도 매우 창의적이다. ‘테라시에 급행(l’express terrassière)’: 영화를 상영하면서 피아노 즉흥연주, 움직임과 결합한 공연, ‘나무에 앉아서(sur un arbre perché)’: 움직임과 음악을 결합하여 동화를 소개하는 공연, ‘소리의 꽃다발(bouquet de sons)’: 어린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벤트 등은 모두 IJD 학생들의 창의적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들이다(IJD 2017a: 6).

국내에서도 달크로즈 교사들에 의해 이러한 창의적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달크로즈 페스티벌’이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 예이다. 이 공연을 통해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접목된 창의적 프로젝트가 꾸준히 발표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유승지의 연구가 2009년에 “달크로즈 페스티벌 분석을 통한 어린이 공연 발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리무 앙상블(Rimu Ensemble)’이다. 현재, ‘리무 앙상블’은 공연장, 미술관, 초등학교, 문화센터, 및 유치원 등에서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며 창의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연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는 공연 요청이 오면 한시적으로 공연 참가자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IJD처럼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공연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교육이 실시되면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하게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여러 기관과의 협력과 참관 및 실습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연구 과정에서 CMG와 IJD가 제휴하여 만들어진 HEM을 통해 학생

들이 이전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받는 것과 CMG, CPMDT, 그리고 IJD가 연합해서 공동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이는 경쟁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한편,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IJD교수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달크로즈 교수법은 교육기관뿐 아니라 사회단체, 병원, 요양원 등으로 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IJD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리드미크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졸업생들은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가지고, 재학생들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현장 적용사례를 다양하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내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실습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한세달크로즈센터 교육과정의 경우 전원 서티피카트 이상을 소지한 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달크로즈 전문가에 의한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만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참관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재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은 유치원,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음악학원, 장애인 학교, 요양원,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실습장소의 확충을 위해 달크로즈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달크로즈교수법을 처음 접하는 시기부터 교육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달크로즈 전문가들은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외의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예·중고 및 음악대학에서, 혹은 연극, 무용, 및 교육대학의 수업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이 보다 폭 넓게

소개될 수 있다면 해당 분야의 교육 발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5. 학제 간 교류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IJD는 음악교육은 물론이고 과학, 사회 및 예술적 응용분야에 걸쳐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제네바대학병원(HUG)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노인 대상 연구는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 내고 있다(Hélène Nicolet 2015: 109). 2011년 HUG의 재할 및 노인 학 전문의인 트롬베티(Andrea Trombetti) 박사가 “달크로즈 교수법을 경험한 노인들이 낙상의 위험이 감소되었다”(Trombetti et al. 2011)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HUG와 제네바알츠하이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네바의 캡 르와지르 재단(Cap Loisirs Foundation)¹²⁾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자폐증,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동들을 위한 연구, 제네바 기독교연합회(Unions Chrétiennes de Genève)의 빌라 요요(Villa YoYo)¹³⁾ 프로그램에 리드미크 수업이 도입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돕는 수단으로써의 달크로즈 교수법에 대한 사례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고,

12) 캡 르와지르 재단은 1980년에 설립된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http://www.caploisirs.ch/> (2018년 6월 접속).

13) 빌라 요요는 성별, 종교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취학 연령 아동(4세부터 12세까지)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http://www.ucg.ch/villa-yoyo/> (2018년 5월 접속).

그 적용분야도 대학 기초 음악교육, 유·초등 교육, 일반 음악교육, 악기 교육, 공연, 무용, 음악치료 등에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그 적용 사례들도 연구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강지혜 2016; 김성희 2015; 신은희 2015; 우두선 2010; 원소연 2009; 유승지 2009; 유승지 2012; 이병목 2018; 이한나 2014; 차선희 2018; 최연선 2015; 최현정 2013; 하주희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이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기초로 적용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들이 연구물로 출판되고, 과학적으로도 달크로즈 교수법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6. 연구 자료 수집 및 출판을 통해 교육 자료를 확보한다.

교사의 즉흥연주와 창의적인 움직임을 기초로 진행되는 달크로즈 수업의 특성 때문에 수업 플랜을 담은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달크로즈 석학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IJD교수진들에 의해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다.

IJD교수진들에 의해 출간된 *La Rythmique Jaques-Dalcroze, un Atout pour les Seniors*(2010), 그리고 *Le Cours des Dames*(2015)는 최근 들어 IJD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노인을 위한 달크로즈 수업의 적용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또한 책으로 수업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달크로즈 수업의 특성 때문에 동영상은 매우 좋은 수업의 자료가 된다. 달크로즈 교수법을 소개하는 *Rythmiques*(2003), 노인 대상의 수업을 소개하는 *La Rythmique et l'Âge d'Or*(2006), 어린이를 위한 리드미크와 솔페즈 수업을 담은 *La Rythmique, le Solfège, un Chemin vers la Musique*(2010)는 IJD 교수진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DVD 들이다(ASPRYJAD). 한편,

달크로즈가 작곡한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재즈 밴드와 어린이 합창단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음반과 책으로 제작한 *Et Pan Dans l'Emile!*(2014)도 출판되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되는 교재, 동영상, 음반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것은 달크로즈 교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외국에서 출간된 교재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국내에서 외국의 달크로즈 관련 교재들이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으나(Abramson 1999; Abramson 2001; Bachmann 2007; Black & Moore 2008; Monica Dale 2012; Spector 2007; Yelin & Braun 1999), 그중 많은 교재들이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영어와 불어에 능숙한 국내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관련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국내 달크로즈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다.

한편,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창작곡을 작곡하고, 플라스틱 아니메 시험을 보면서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공연도 한다. 그리고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티칭 시험을 위해 수업 장면을 녹화해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좋은 수업 동영상도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또한 시험 응시자들의 독창적인 적용 경험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만 꾸준히 수집을 해 나가도 상당한 양의 교육 자료를 확보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지난 2018년 6월에 달크로즈 교사들이 즉흥연주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작곡들은 엮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피아노 창작곡집』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시험 관련 자료를 모아 출판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수업을 위한 교육 자료들이 확충되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글로벌한 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적 교류를 확대한다.

국내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은 1) 1기: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위성학교 프로그램 시기(2003년~2009년), 2) 2기: 독자적 프로그램 운영 시기(2011년~현재)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인 사카이가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네바달크로즈이사회는 독립적인 달크로즈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의 디플로마 소지자가 교수진으로 있어야 하고, 제네바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 1명의 디플로마 소지자와 2명의 라이선스 교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Le Collège 2009: 29).

따라서 국내 달크로즈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완전히 독립적인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디플로마 소지자의 탄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JD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IJD에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출신의 많은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003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지난 15년 동안 자질을 갖춘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JD에 유학한 교사가 1명도 없는 것은 한국의 달크로즈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한국의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더불어 국내 달크로즈 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달크로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IJD에서 공부하는데 필수요건인 불어를 열심히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생기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달크로즈 전문가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인재

들도 양산되리라 생각된다.

그래도 무척 기쁘게 생각되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달크로즈 교육만으로 양성된 젊은 인재들이 ISME, APSMER, IJD Congress, ICDS 등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불어는 물론이고 영어에 능숙한 다수의 한국인 달크로즈 전문가들의 출현을 기대한다.

V. 나가는 글

현장 체험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다음에서 제시되는 교육을 지향하며 IJD의 달크로즈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설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달크로즈 교수법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나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둘째, 창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교육
셋째, 사회 속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넷째, 달크로즈 교수법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할 연구자를 양성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주 20~25시간의 강도 높은 수업이 실시되었고, 학생들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적용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고 있었다. 또한 음악과 움직임을 결합한 창의적 프로젝트의 제작이 매우 활발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상아탑 속에서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누는 행사로 전개되는 것,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선·후배 간의 협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교사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 점진적인 교육체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참관·실습 과정 등은 매우 인상 깊은 제도였다. 교수진들은 이와 같이 학교 구성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 외에 정부, 교육기관, 그리고 시설 재단 등과의 협업, 학제 간 교류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달크로즈 교수법의 저변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IJD와 국내의 교육 여건은 매우 다르지만 ‘자격을 갖춘 달크로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는 동일하다.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현장 맞춤형 인재로 커나가는 IJD학생들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교수인력과 교육환경을 갖추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본다. 앞으로 국내에서 달크로즈 교육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달크로즈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탐색, 2) 학생들의 점진적 실력 향상을 유도하는 시험제도 개발, 3) 선·후배 간의 소그룹 활동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프로젝트 수행, 4)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5) 학제 간 교류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6) 연구 자료 수집 및 출판을 통한 교육 자료 확보, 7) 글로벌한 인재 육성을 통한 세계적 교류 활성화 등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내 달크로즈 교육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해나가고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점점 많아지면 지금 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지혜. 2016. “달크로즈 슬페즈 수업의 적용: 사교육현장의 초등학생을

- 대상으로,” 『한국달크로즈저널』 26, 3-30.
- 김성희. 2015. “성악 연습에서의 유리드믹스 활용방안,” 『한국달크로즈저널』 25, 29-54.
- 김혜진. 2008. “국내·외 Dalcroze Eurhythmics 교육현황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은희. 2015. “달크로즈 스케일을 적용한 초급 바이올린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스케일 연습 방안 연구,” 『한국달크로즈저널』 24, 33-51.
- 우두선. 2010.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이용한 합창지도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8/3, 55-76.
- 원소연. 2009. “노인을 위한 달크로즈 수업,” 『한국달크로즈논집』 1, 39-45.
- 유승지. 2009. “달크로즈페스티벌 분석을 통한 어린이 공연 발전 모색,” 『음악과 문화』 20, 55-85.
- _____. 201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활용 방안,” 『이화음악 논집』 16/1, 47-82.
- 유승지(편). 2018. 『창의력을 키워주는 피아노 창작곡집』. 서울: 음악춘추사.
- 이병목. 2018.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오카리나 지도방법 연구,” 『2018년 한국음악교육학회 제 49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279-286.
- 이한나. 2014. “달크로즈 교수법을 접목한 치매노인의 수업모형개발과 지도방안,” 『한국달크로즈저널』 22, 57-74.
- 차선희. 2018. “합창 수업에서의 달크로즈 음악게임 적용 방안,” 『2018년 한국음악교육학회 제 49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303-308.
- 최연선. 2015. “달크로즈 교수법과 라반의 에포트를 활용한 움직임 음악 연구,” 『한국달크로즈저널』 24, 3-33.
- 최현정. 2013.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달크로즈 수업 방안 연구,” 『한국달크로즈저널』 21, 3-24.
- 하주희. 2014.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초보자를 위한 하프 레슨 프로그램 연구,” 『한국달크로즈저널』 22, 27-56.
- Abramson, R. M. 1999. 『달크로즈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 게임』. 유승지 역. 서울: 태림출판사(원서출판, 1997).
- _____. 2001. 『달크로즈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 게임 II』. 유승지·조수경 역. 서울: 태림출판사(원서출판, 1998).
- Bachmann, M. L. 2007. 『오늘의 달크로즈: 음악을 통한 음악을 위한 교육』.

- 문연경 외 역. 서울: 꿈꾸는 아침(원서출판, 1991).
- Bachmann, M. L. et al. 2010. *Emile Jaques-Dalcroze, Music in Movement*. Genève: IJD.
- Bianco, S. D., Gianadda, R., & Chrisman, G. 2010. *La Rythmique Jaques-Dalcroze, un Atout pour les Seniors*. Genève: Editions Papillon.
- Black, J. S., & Moore, S. F. 2008. 『내면의 리듬: 음악을 통한 몸, 마음, 영혼과의 결합』. 이 에스더 역. 서울: 상지원(원서출판, 2003).
- Chenu, P., Rogg, O., & Sourisse, L. 2014. *Et Pan Dans l'Emile!: Douze Chansons d'Emile Jaques-Dalcroze*. Genève: Editions Papillon.
- Dale, M. 2012. 『달크로즈유리드믹스 활동집 1』. 유승지 외 역. 서울: 뮤직트리(원서출판, 2000).
- Dittus, J., & Couch, K. 2018. *Professional Studies Program and The Dalcroze Academy Student Handbook, 7th Edition*.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90a327459cc68c870460707/t/5a7b432753450a72dddac506/1518027562716/2018+DSR+Student+Handbook.pdf>
(2018년 8월 접속)
- Duret, M., Bianco, D. S., and Bachmann, M. L. 2012. *Diplôme Supérieur: Regulations and Course of Study*. Genève: IJD.
- FEGM(Fédération des Écoles Genevoises de Musique). 2010. *Plan Cadre: d'Études Musicales de la Fédération des Ecoles Genevoises de Musique*. Genève: Editions Papillon.
- Gianadda, R., Brice, M., & Nicolet, H. 2015. *Le Cours des Dames*. Genève: IJD.
- HEM(Haute École de Musique de Genève). 2017. *HEM 2017-2018 Guide de l'Étudiant*. Genève: HEM.
- IJD(Institut Jaques-Dalcroze). 2017a. *IJD Programme des Cours 2017-2018*. Genève: IJD.
- _____. 2017b. *Institut Jaques-Dalcroze Semaines de Visites du 30 Octobre au 1er November*. Genève: IJD.
- Le Collège de l'Institut Jaques Dalcroze. 2009. *The Dalcroze Identity*. Genève: IJD.
- Nicolet, H. 2015. "Jaques-Dalcroze Eurhythmics for Senior Citizens,"

『한국달크로즈저널』 25, 107-115.

Sakai, T. 2012. 『국제공인달크로즈자격증 안내』 유승지 역. 군포: 한세달크로즈센터.

Spector, I. 1990. *Rhythm and Life: The Work of Emile Jaques-Dalcroze*. N.Y.: Pendragon Press.

_____. 2007. 『삶과 리듬: 에밀 자크 달크로즈가 걸어온 길』. 문연경·왕미정·정현희 역. 서울: 리더스 하이(원서출판, 1990).

Sourisse, L. 2017. “L'improvisation Instrumentale Dans la Filière HEM «Musique et Mouvement Jaques-Dalcroze»,” *Pédagogie, Art et Science: L'Apprentissage Par et Pour la Musique Selon la Methode Jaques-Dalcroze*, 167-180.

Trombetti, A. et al. 2011. “Effect of Music-Based Multitask Training on Gait, Balance, and Fall Risk in Elderly People,” *Arch Intern Med* 171(6), 525-533.

Wax, E. 1973. *Dalcroze Dimension*. NY: Mostly Movement.

Yelin, J., & Braun, E. 1999. 『달크로즈유리드믹스를 위한 피아노 연주곡집』. 유승지 역. 서울: 태림출판사(원서출판, 1993).

<인터넷 사이트>

“아피아(Adolphe Appia),” 다음백과. 2018년 6월 접속.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4a2777a>.

달크로즈인스티튜트(Institut Jaques-Dalcroze). 2018년 7월 접속.

<https://www.dalcroze.ch>

대중음악·무용·연극 콘서바토리(Conservatoire Populaire de Musique, Danse, Théâtre). 2018년 6월 접속. <https://cpmdt.ch/>

빌라 요요(Villa YoYo). 2018년 5월 접속. <http://www.ucg.ch/villa-yoyo/>

제네바국립고등음악원(Haute École de Musique de Genève). 2018년 6월 접속. <https://www.hesge.ch/hem/>

제네바 음악원(Conservatoire de Musique de Genève). 2018년 6월 접속. <http://www.cmg.ch/>

캡 르와지르 재단(Cap Loisirs Foundation). 2018년 6월 접속.

<http://www.caploisirs.ch/>

캐나다달크로즈학회(Dalcroze Canada). 2018년 7월 접속.

<https://dalcrozecanada.com/index.php/en/training/get-started>

한세달크로즈센터. 2018년 6월 접속. <http://www.hanseidalcroze.com>

<DVD>

ASPRYJAD(Association Suisse des Professeurs de Rythmique
Jaques-Dalcroze). 2003. *Rythmiques*. Genève: ASPRYJAD.

_____. 2006. *La Rythmique et l'Âge d'Or*. Genève: ASPRYJAD.

Weber-Balmas, M. 2010. *La Rythmique, le Solfège, un Chemin vers la
Musique*(Côté, F. Prod.). Genève: ASPRYJAD.

검색어: 달크로즈, 스위스 달크로즈인스티튜트, 한국의 달크로즈 교
육, Dalcroze, The Institut Jaques-Dalcroze, Dalcroze Education in
South Korea

<Abstract>

Seeking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the Korean Dalcroze Education

Seungji Ryu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measures to further develop
Korean Dalcroze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Dalcroze educational program of the Institut Jaques-Dalcroze (IJD), which is not well know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visited IJD from October 30th to November 17th, 2017, and experienced the actual education through participating in various classes. In addition, a thorough review of the curriculum was conducted using the following methods: interviewing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nalyzing information about the IJD course from brochures and information retrieved online, and using handbook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program of IJD, it was recognized that the curriculum for the Dalcroze teacher training was designed for the following educational objectives: 1) Education to nurture professionals who maintain and develop the identity of the Dalcroze method; 2) Education to raise artists who can carry out creative projects; (3) Education to foster teachers who broaden the scope of the Dalcroze method in society; and (4) Education to cultivate researchers who will lead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Dalcroze method.

IJD and domestic education conditions are very different, but the educational goal of training qualifying Dalcroze experts is the sam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efforts seem to be necessary for Korean Dalcroze education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1) Exploring a systematic curriculum to nurture Dalcroze experts more effectively; 2) Developing a test system to help students progressively improve their skills; 3) Promoting creative projects via small-group activities with various level of students (ranging from beginner to advanced); 4) Nurturing field-customized talents through cooperation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efficient

operations of teaching practice process; 5)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through interdisciplinary exchanges; 6) Obtaining educational materials through collecting and publishing research data; and 7) Fostering exchanges through global young talents cultivation.

투고일 2018년 8월 31일
심사일 2018년 9월 2일
최종본제출일 2018년 9월 10일
DOI 10.17091/kswm.2018..39.95